

中, 배터리 우회로 찾기 ‘분주’ 韓, 美 추가규제 우려 등 ‘긴장’

IRA 재정 1년

중업체, 합작사 설립 등 북미 공략
국내업체, 美 정부 추가행보 주목
“일종의 ‘불안한 동거’… 예측불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중국배터리 업체들이 북미 진출을 위한 ‘우회로’ 찾기에 분주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면서도 “미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반응도 공존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생산업체 귀시안은 미국 정부의 승인 아래 미국에 20억 달러(약 2조67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공장은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40GWh 규모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으며, 일리노이주 만테노에 설립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는 귀시안에 5억36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향후 30년 동안 2억13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생산 물량은 북미 자동차 회사에 납품될 예정이다.

또한 귀시안은 미시간주 빅 레피즈에도 24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귀시안의 모회사는 중국 허페이시에 본사를 둔 고션 하이테크(Gotion High Tech)로 최대 주주는 독일 폭스바겐이다. 고션 하이테크는 배터리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8위 기업으로 북미 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다.

폭스바겐이 지난 2020년에 고션 하이테크의 지분 26.47%를 사들여 ‘중국 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창업주인 리젠 회장이 여전히 경영권을 쥐고 있어 폭스바겐이 아무리 대주주라도 ‘중국 기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 리젠은 2대 주주로 지분 13.6%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고션 하이테크의 미국 공장 설립은 배터리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다. 결국 IRA의 목적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배제하자는 취지가 있음에도 고션 하이테크의 사례가 기준이 되면 향후에도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고션 하이테크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6월 귀시안의 빅 레피즈 지역 공장 부지 매입은 국방물자생산법(DPA)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고션 하이테크 외에도 중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진출은 합작사와 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중국 CATL의 경우는 지분 투자 없이 기술 이전 방식으로 포드 자동차와 35억달러(4조6700억원)를 들여 미국 미시간주에 합작사 형태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이브에너지(Eve Energy)는 미국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과 함께 미국에 26억4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를 투자해 21GWh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브에너지는 자사의 투자금과 지분은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에 10%라고 알렸다. 이는 IRA 우회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도 당장 중국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령 합작사를 만들어도 어떠한 요인으로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IRA와 상관없이 합작 결렬도 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불안한 동거’인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EOC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민도 깊다는 의미”라며 “중국도 위협하다는 것을 알지만 전기차 수요가 많은 미국 시장을 중국 내수만 믿고 배제하기는 힘들다”라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갤럭시 Z 플립 5, 中 황푸강 가로질러

삼성전자가 중국 상하이에서 ‘갤럭시 Z 플립 5’의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중국 상하이에서 LED로 제작된 약 70m 길이의 ‘갤럭시 Z 플립5’ 조형물 선박을 제작하고 선상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선박은 중국 상하이 중심을 가로지르는 황푸강 약 20Km 구간을 왕복 운행했으며, 야경을 즐기기 위해 모인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 중국에서 ‘갤럭시 Z 플립5’와 ‘갤럭시 Z 폴드5’를 출시했으며, 전작 대비 높은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

애경케미칼, 난연·내식 수지 ‘FM 인증’

“글로벌 기준 화재 안전성 보장”

애경케미칼이 자체 개발한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가 국제 화재 안전성 인증인 ‘FM 인증’을 받았다.

12일 애경케미칼에 따르면 ‘FM 인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해보험회사인 미국의 FM Global사가 소방설비, 건축자재 등에 부여하는 화재 안전성 관련 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인증이 완료된 후에도 매년 상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케미칼은 “화재 안전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FM인증은 전세계 보험사들이 화재 안전도 평가 및 보험료 책정 시 FM 인증 여부를 활용할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애경케미칼의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는 반도체 플랜트 클린룸에 적용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의 소재로 활용된다. 클린룸은 청정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정 특성상 작은 화재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난연·내식 성능을 보유한 FRP 소재를 활용해 덕트와 스커버 등의 장비를 제작하도록 정해져 있다. FM인증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애경케미칼은 “해당 수지는 글로벌 기준의 화재 안전성은 물론이고 화학 물질에 대한 내식성까지 보장할 수 있어 시장 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경케미칼 수지 하나로 내식 층과 보강층 모두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 소재가 갖고 있던 층 간 박리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애경케미칼은 2021년 11월 초고성능 난연·내식 복합소재용 수지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2월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FM인증 평가를 한번에 통과한 바 있다. 애경케미칼은 추가적으로 난연 인증(ASTM E-84 CLASS A 등급)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英 방산 전시회 ‘DSEI’ 참가

‘K9A2’ 패키지 공개… 英 MFP 사업 도전

현지 특화 수주 방침… ‘팀 썬더’ 결성
레드백 장갑차 등 첨단 무기체계 제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신형 K9 자주포인 ‘K9A2’로 영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호주에서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폴란드에서의 유무인차량(UGV) 차세대 협력에 이어 영국 시장을 겨냥한 첨단 무기체계를 제시해 글로벌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 전시회(DSEI)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15㎡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자동화포탑, 고무궤도를 적용해 성능을 향상시킨 K9A2 자주포를 ‘K10 탄약운반차’, 모듈화 장약 ‘MCS’와 함께 ‘자주포 패키지’로 공개한다.

이번에 전시된 K9A2 모델은 탄약 및 장약을 완전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어 분당 9발 이상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고 기존 스틸 궤도 대신 복합소재의 고무 궤도를 장착해 진동, 소음이 줄어 안정적인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다.



9월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시회 DSEI에 차려진 한화 부스 중앙에 K9A2 신형 자주포가 전시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2를 통해 영국의 MFP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MFP사업은 영국이 주력 자주포인 AS90를 대체할 차세대 자주포 116문을 획득하는 약 1조2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현지 방위산업체들과 ‘팀 썬더’를 결성해 현지 특화 수주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태평양쪽에서 새로운 방산분야 협력 확대를 원하는 영국을 위한 제품군도 제

시한다. K9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지대지 유도탄인 천검, 천무 다련장로켓, 잠수함용 리튬전지체계, 한화페이저의 전자식 위성통신안테나까지 공개해 육해공 분야의 솔루션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호주, 폴란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증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영국과의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유진영의 안보에 기여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수습기자 hyeon@

고려아연, 그린수소 사업 로드맵 공개

2023 H2 MEET

생산·저장·운송 등 사업 전반 소개

고려아연이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2023 H2 Meet’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업 현황, 그린수소 밸류체인 등을 포함한 총체적 로드맵을 공개한다.

고려아연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2023 H2 Meet’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3 H2 Meet’에서 수소사업 현황을 담은 부스를 기획했다. 부스방문자는 배치된 디오라마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그린수소 밸류체인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확

인할 수 있다. 또 아크에너지 등 호주 현지 계열사를 통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생산, 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의 저장과 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사업의 로드맵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려아연의 대표 CSR 활동 중 하나인 ‘이음의 숲’ 캠페인을 소개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캠페인과 연계된 이벤트 공간이 조성돼 친환경 미래를 위한 숲 조성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려아연은 호주자회사 SMC 제련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호주 최대 풍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맨킨타이어’의 지분 30%를 확보하는 등 재생에너지 자산과 사업역량을 확보했다.

/차현정 수습기자



고려아연 2023 H2 MEET 부스 조감도

/고려아연